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19 주차 (9:18-9:34)

(2015년 5월 31일 - 2015년 6월 6일)

(제3권 19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19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5 월 31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http://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나의 신념체계가 무너져야 주님이 보입니다 (주일)

### 오늘의 본문(요 9:18~23)

18.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9.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20.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 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23.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 보시오 하였더라

### 원문해석하기

- (18절)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가 장님이었고 다시 보게 되었다는 그에 대해 믿지 못하였습니다  
(Οὐκ ἐπίστευσα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περὶ αὐτοῦ ὅτι ἦν τυφλὸς καὶ ἀνέβλεπεν)  
다시 보게 된 자의 부모들을 부를 때까지 (ἕως ὅτου ἐρώνησαν τοὺς γονεῖς αὐτοῦ τοῦ ἀναβλέμαντος)
- (19절) 그들이 그들[그 부모]에게 물어 말하기를 (καὶ ἠρώτησαν αὐτοὺς λέγοντες)  
이 사람이 당신들의 아들입니까?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υἱὸς ὑμῶν.)  
당신들이 장님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ὃν ὑμεῖς λέγετε ὅτι τυφλὸς ἐγεννήθη.)  
그러나 그가 어떻게 지금 봅니까? (πῶς οὖν βλέπει ἄρτι.)
- (20절) 그러자 그의 부모들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οὖν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καὶ εἶπαν·)  
나는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장님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οἶδαμεν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υἱὸς ἡμῶν καὶ ὅτι τυφλὸς ἐγεννήθη.)
- (21절)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보는지 알지 못합니다 (πῶς δὲ νῦν βλέπει οὐκ οἶδαμεν.)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ἢ τίς ἤνοιξεν αὐτοῦ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ἡμεῖς οὐκ οἶδαμεν.)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가 성숙했습니다. 그가 그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αὐτὸν ἐρώπησατε, ἡλικίαν ἔχει, αὐτὸς περὶ ἑαυτοῦ λαλήσει.)
- (22절) 그의 부모들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ταῦτα εἶπαν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ἐφοβοῦντο τοὺς Ἰουδαίους.)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미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ἤδη γὰρ συνετέθειντο οἱ Ἰουδαῖοι)  
만약 누구든지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출교하기로  
(τίνα ἐάν τις αὐτὸν ὁμολογήσῃ χριστόν, ἀποσυνάγωγος γένηται.)
- (23절) 이 때문에 그의 부모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εἶπαν)  
그가 성숙했으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ὅτι ἡλικίαν ἔχει, αὐτὸν ἐπερωτήσατε.)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8~19 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이 장님으로 있다가 보게 되었다는 청년의 말을 믿지 못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사람이 당신들이 장님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당신들의 아들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지금] 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 청년이 당신들이 낳은 아들이 맞냐고 묻습니다. 이 청년의 말대로 그가 만약 장님이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믿어 왔고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통해서선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장님이었던 사람이 온전해진 것은 분명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고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도, 눈을 뜨게 된 이 청년도 모두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셔서 그 청년의 눈에 바르심으로 안식일을 범하셨고, 그 청년은 실로암에 가서 그의 눈을 씻음으로써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율법을 어겼음에도 이 청년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믿고 있던 종교적 신념 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딜레마에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려는 것은 지금 멀쩡한 시력을 가진 그가 원래부터 장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도로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런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금 봅니까?”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만약 그 청년이 장님이었다면 지금처럼 눈을 떠서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부모나 그 청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몰아가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나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을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함부로 단정하여 그들의 믿음없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라는 사실은 그들도 믿었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들이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이려고까지 모의를 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했다는 사실에 이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지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 취소론을 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논리인데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인용할 때 항상 주의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 구절 간에 해석상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는 둘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상위개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상위의 개념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짓는 죄를 해결해주지 못하는가? 일단 구원을 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이후부터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신인협력설이 과연 타당한 논리인가? 등등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보면 그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즉, 구원 취소론을 주장하는 분은 분명 구원의 의

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논리를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그들이 다음과 같은 논리적 함정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일을 행한 예수님을 그들의 종교적 틀로 해석하여 죄인으로 단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일이 안식일에 행해졌으며, 자기들의 종교적 전통으로 볼 때는 거룩하게 지켜져야 할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는 죄인인 것이고, 그 이유로 이 청년이 눈을 뜬 사실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이 그들에겐 오히려 진리에 새롭게 눈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다는 사실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이 청년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음으로써 고침받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들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던 형식적인 종교의 틀을 깨면 그만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과 그들의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로부터 난 자’ 또는 ‘위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부합한 생각인 것입니다. 둘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맞지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마저 모조리 악한 일이고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죄인이 죄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생각이 맞다면, 적어도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은 죄가 아니어야 하고 따라서 예수님도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논리를 통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 청년의 부모에게 한 이 질문 속에 이런 깊은 뜻이 담겨있습니다. 성경은 답을 곧바로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생기는 의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이 진리와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보고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은 진화론을 굳게 믿고 있으며 그것을 성경의 진리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그동안 쌓아온 세계관, 신념 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그만큼 다른 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당신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두려움과 비검함 (월요일)

### 오늘의 본문(요 9:18-23)

18.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9.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20.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 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23.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 보시오 하였더라

### 원문해석하기

- (18절)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가 장님이었고 다시 보게 되었다는 그에 대해 믿지 못하였습니다  
(Οὐκ ἐπίστευσα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περὶ αὐτοῦ ὅτι ἦν τυφλὸς καὶ ἀνέβλεπεν)  
다시 보게 된 자의 부모들을 부를 때까지 (ἕως ὅτου ἐρώνησαν τοὺς γονεῖς αὐτοῦ τοῦ ἀναβλέμαντος)
- (19절) 그들이 그들[그 부모]에게 물어 말하기를 (καὶ ἠρώτησαν αὐτοὺς λέγοντες)  
이 사람이 당신들의 아들입니까?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υἱὸς ὑμῶν.)  
당신들이 장님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ὃν ὑμεῖς λέγετε ὅτι τυφλὸς ἐγεννήθη.)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금 봅니까? (πῶς οὖν βλέπει ἄρτι.)
- (20절) 그러자 그의 부모들이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οὖν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καὶ εἶπαν·)  
나는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장님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οἶδαμεν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υἱὸς ἡμῶν καὶ ὅτι τυφλὸς ἐγεννήθη.)
- (21절)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보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πῶς δὲ νῦν βλέπει οὐκ οἶδαμεν.)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ἢ τίς ἤνοιξεν αὐτοῦ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ἡμεῖς οὐκ οἶδαμεν.)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가 성숙했습니다. 그가 그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αὐτὸν ἐρώπησατε, ἡλικίαν ἔχει, αὐτὸς περὶ ἑαυτοῦ λαλήσει.)
- (22절) 그의 부모들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ταῦτα εἶπαν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ἐφοβοῦντο τοὺς Ἰουδαίους.)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미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ἤδη γὰρ συνετέθειντο οἱ Ἰουδαῖοι)  
만약 누구든지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출교하기로  
(τίνα ἐάν τις αὐτὸν ὁμολογήσῃ χριστόν, ἀποσυνάγωγος γένηται.)
- (23절) 이 때문에 그의 부모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διὰ τοῦτο οἱ γονεῖς αὐτοῦ εἶπαν)  
그가 성숙했으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ὅτι ἡλικίαν ἔχει, αὐτὸν ἐπερωτήσατε.)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0 절과 21 절을 읽으십시오. 그 청년의 부모들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장님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보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그가 성숙했습니다. 그가 그에 대하여 말할 것입니다.”

그 청년의 부모가 답한 내용에서 그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이 청년은 다름 아닌 자기 아들입니다. 가장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해야 할 이들이 지금 그 기쁨을 누리기는 커녕 자신들의 안위에 급급하여 유대인들에게 책잡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첫째, “이 청년이 당신들이 장님으로 태어났다고한 그 아들이냐?”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이들은 나는 그가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장님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οἶδόμεν, 오이다멘).”라고 대답합니다. 그냥 “예 그는 장님으로 태어난 내 아들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어정쩡하게 대답합니다. 게다가 나면서부터 장님으로 ‘알고 있던’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지 또는 아들의 눈을 누가 뜨게 했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들의 태도는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해 보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녀야 할 사람들이 바로 부모였을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상기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 청년이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요 9:2).

이런 질문은 단지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만연한 사회적 통념이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장님으로 태어났으니 부모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었다는 근거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지은 죄라는 죄는 죄다 생각해 내서 실제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 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식의 눈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은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눈을 뜨게 된 청년이고 그에 못지 않게 그 부모도 그 사실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는 드러내 놓고 그 사실을 기뻐하지도, 남들에게 간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당사자인 자기 아들에게 직접 물어 보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에게 그 짐을 넘깁니다. 아들이 이미 자신의 의견을 말할 정도로 장성한 청년이라고 하면서요.

22 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은 그 부모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매우 친절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누구든지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출교하기로 유대인들이 이미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부모들이 이런 태도를 취한 이유는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출교를 당해야 하는 심각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책잡힐만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다. 사실 출교 문제는 예수님이 계실 때뿐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직면했던 가장 심각한 위협 중의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6 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포함한 믿는 사람들이 당할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요16:14).

당시 출회(출교)란 단순히 유대교에서 제명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해 결국을 공동체를 떠나야 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처럼 살아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청년의 부모는 그것이 너무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불신이 아닙니다. 불신은 믿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득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문이 남아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남들에게 왕따를 당할까봐 두렵고, 남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봐 두렵습니다. 요즘처럼 기독교가 안팎으로 욕을 먹고 있는 때에는 기독교인으로 커밍아웃(?)을 하는데에도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부모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장남 아들을 두었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전의 삶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로 인해 앞으로 자신들이 받을 피해만을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슬쩍 아들에게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23 절을 읽으십시오. “그가 성숙했으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이 말은 아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이런 핑계를 대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떡하나요? 내가 복음을 온전히 알아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는 자유를 누리는 것은 너무 좋지만 예수님을 위해 그를 증거하는 일은 여전히 두렵지는 않은지요?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했나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나는 장님이었으나 지금은 봅니다 (화요일)

### 오늘의 본문 (요 9:24~34)

24. 이에 저희가 소경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26.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 원어해석하기

- (24절) 그러자 그들이 전에 장님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Ἐρώνησαν οὖν τὸν ἄνθρωπον ἐκ δευτέρου ὡς ἦν τυφλὸς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당신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δοῦς δόξαν τῷ θεῷ·)  
우리는 그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ἡμεῖς οἶδαμεν ὅτι οὗτος ὁ ἄνθρωπος ἁμαρτωλὸς ἐστίν.)
- (25절)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 οὖν ἐκεῖνος·)  
나는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εἰ ἁμαρτωλὸς ἐστίν οὐκ οἶδα·)  
나는 내가 장님이었으며 지금은 본다는 한 가지 [사실]를 알고 있습니다  
(ἐν οἶδα ὅτι τυφλὸς ὦν ἄρτι βλέπω.)
- (26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αὐτῷ·)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τί ἐποίησέν σοι·)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πῶς ἤνοιξέν σου τοὺς ὀφθαλμούς·)
- (27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ὑμῖν ἤδη)  
그런데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까 (καὶ οὐκ ἠκούσατε·)  
왜 당신이 다시 들으려 합니까? (τί πάλιν θέλετε ἀκούειν·)

- 당신들도 역시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μη και υμεις θελετε αυτου μαθηται γενεσθαι.)
- (28절) 그들이 그에게 욕을 하고 말했습니다 (και ελοιδορησαν αυτον και ειπον·)  
당신은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συ μαθητης εις εκεινου, ημεις δε του Μουυσηως εσμεν μαθηται·)
- (29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다 (ημεις οιδουμεν οτι Μουσει λελαληκεν ο θεος·)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τουτον δε ουκ οιδουμεν ποθεν εστιν.)
-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απεκριθη ο ανθρωπος και ειπεν αυτοις·)  
지금 이것이 놀랍습니다 (εν τούτω γαρ το θαυμαστόν εστιν.)  
당신들은 그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합니다 (οτι υμεις ουκ οιδετε ποθεν εστιν.)  
그런데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και ηνοιξεν μου τους οφθαλμους·)
- (31절)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들로부터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οιδουμεν οτι αμαρτωλων ο θεος ουκ ακουει.)  
그러나 그가 신실하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αλλ' εαν τις θεοσεβης η και το θελημα αυτου ποιη)  
그[하나님]가 그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τουτου ακουει.)
- (32절) 그 세대로부터 (창세로부터)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εκ του αιωνος ουκ ηκουσθη οτι ηνερωξεν τις οφθαλμους τυφλου γεγεννημενου·)
- (33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ει μη ην ουτος παρα θεου·)  
그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ουκ ηδυνατο ποιειν ουδεν·)
-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απεκριθησαν και ειπαν αυτω·)  
당신이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εν αμαρτιας συ εγενηθης ολος)  
우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και συ διδασκεις ημας·)  
그리고 그를 내어 쫓았습니다 (και εξεβαλον αυτον εξω.)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4 절을 읽으십시오. 그 청년의 부모를 통해 예수님이 죄를 지었으며 청년과 예수님이 결탁해서 기적을 조작한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을 그 청년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우리는 그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매우 교묘한 술수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청년이 눈을 뜨게 된 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기적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인정하되 예수님은 이 일과 전혀 상관없는 죄인으로 몰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묘한 말로 청년을 유도하여 그 입으로 직접 예수가 죄인이라는 증언을 확보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이 청년이 장님이었으며 눈을 뜨게 된 것은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일은 예수가 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쪽으로 몰아가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대해 “우리는 그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일을 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넘기지 그 청년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그동안 예수를 죄인으로 지목하여 잡아들이려 했던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할 판국이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그들이 누리던 지위와 기득권은 모조리 무너지고 말 것임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청년의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내세운 논리가 “예수님은 죄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 일을 하실 리 만무하니 결국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청년이 유대인들에게 시달리거나 해코지 당하는 것이 두려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해 준다면 유대인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청년은 그의 부모와는 달리 매우 담대했으며 진실되게 증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5 절을 읽으십시오. 그 청년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장님이었으며 지금은 본다는 한 가지[사실]를 알고 있습니다.” 청년의 대답은 매우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청년의 증언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든 처음 믿음을 갖게 될 때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 오면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은 지금 이 청년의 고백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의 신앙 여정과 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대한 고백을 들어보기로 하지요.

요한 웨슬리는 1703년 6월 17일 영국 노스 링컨셔에 있는 엠펜스(Epworth)에서 영국 교회의 목사인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와 신실한 신앙이었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이의 19명의 형제중 15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주 신실한 어머니 수산나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열정적인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 한 활동 목록입니다.

- (1) 어린시절 신앙심이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 (2) 1720년 17세의 나이로 옥스포드대학에 입학하여 캠퍼스내 경건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 a. 매우 규칙적이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 감리회(Methodist)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 b. 매일 성경 읽기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여 경건 생활이 몸에 배게 하였습니다.
  - c. 헬라이어 신약성경 공부와 고전 연구를 통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d. 매주일 성찬식을 했으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금식을 하였습니다.
  - e.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죄악을 경계하고 바르고 순결한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 f.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격려하였습니다.

- (3) 어린 시절 큰 화재로 인해 자신이 살던 집이 모두 불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던 가족 모두는 하나도 부상을 입지 않고 전원이 무사히 집 밖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 믿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엄청난 체험이었습니다.
- (4) 1735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직에 올랐습니다.
- (5) 1735년부터 1738년까지 선교사로 미국으로 건너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했던 일입니다. 그는 이러한 종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확신이 없는 허울뿐인 종교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가 3년간의 인디언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열매없는 빈 바구니를 가지고 낙심한 채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벌이라도 내리시는 듯 엄청난 풍랑이 그가 탄 배를 덮쳐 왔습니다. 그는 마음 속으로 실패한 자신을 징계하려고 오신 진노의 하나님을 생각하고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 같았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의 마음은 절망감,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에 대한 생각으로 거의 공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기 어려운 광경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런 모진 풍랑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눈에 들어 왔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극심한 풍랑에도 불구하고 저토록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는 목사이자 선교사인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도 못했고 자신의 내면 속에 구원의 확신도 없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요한 웨슬리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체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울더스게이트의 거리에서 모이는 집회에 나갔습니다. 집회 인도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죠. 9시 15분 전후로 기억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으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죄를 없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하여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요한 웨슬리와 같은 회심의 순간이 있었나요? 당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와 그 때의 감정을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수요일)

### 오늘의 본문 (요 9:24~34)

24. 이에 저희가 소경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26.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 원어해석하기

- (24절) 그러자 그들이 전에 장님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Ἐρώνησαν οὖν τὸν ἄνθρωπον ἐκ δευτέρου ὃς ἦν τυφλὸς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당신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δοῦς δόξαν τῷ θεῷ·)  
우리는 그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ἡμεῖς οἴδομεν ὅτι οὗτος ὁ ἄνθρωπος ἁμαρτωλὸς ἐστίν.)
- (25절)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 οὖν ἐκεῖνος·)  
나는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εἰ ἁμαρτωλὸς ἐστίν οὐκ οἶδα·)  
나는 내가 장님이었으며 지금은 본다는 한 가지 [사실]를 알고 있습니다  
(ἐν οἷδα ὅτι τυφλὸς ὦν ἄρτι βλέπω.)
- (26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αὐτῷ·)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τί ἐποίησέν σοι·)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πῶς ἤνοιξέν σου τοὺς ὀφθαλμούς·)
- (27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ὑμῖν ἤδη)  
그런데 당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καὶ οὐκ ἠκούσατε·)

- 왜 당신들이 다시 들으려 합니까?(τί πάλιν θέλετε ἀκούειν.)  
당신들도 역시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μη καὶ ὑμεῖς θέλετε αὐτοῦ μαθηταὶ γενέσθαι.)
- (28절) 그들이 그에게 욕을 하고 말했습니다 (καὶ ἐλοιδόρησαν αὐτὸν καὶ εἶπον·)  
당신은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σὺ μαθητὴς εἶ ἐκείνου, ἡμεῖς δὲ τοῦ Μωϋσέως ἐσμὲν μαθηταί·)
- (29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다 (ἡμεῖς οἴδαμεν ὅτι Μωϋσεὶ λελάληκεν ὁ θεός.)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τοῦτον δὲ οὐκ οἴδαμεν πόθεν ἐστίν.)
-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ὁ ἄνθρωπο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지금 이것이 놀랍습니다 (ἐν τούτῳ γὰρ τὸ θαυμαστόν ἐστίν.)  
당신들은 그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합니다 (ὅτι ὑμεῖς οὐκ οἴδατε πόθεν ἐστίν.)  
그러나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καὶ ἤνοιξέν μου τοὺς ὀφθαλμούς.)
- (31절)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들로부터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οἴδαμεν ὅτι ἁμαρτωλῶν ὁ θεὸς οὐκ ἀκούει.)  
그러나 그가 신실하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ἀλλ' ἐάν τις θεοσεβῆς ἦ καὶ τὸ θέλημα αὐτοῦ ποιῇ)  
그[하나님]가 그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τούτου ἀκούει.)
- (32절) 그 세대로부터 (창세로부터)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을 들지 못했습니다  
(ἐκ τοῦ αἰῶνος οὐκ ἠκούσθη ὅτι ἠνέωξεν τις ὀφθαλμούς τυφλοῦ γεγεννημένου·)
- (33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εἰ μὴ ἦν οὗτος παρὰ θεοῦ.)  
그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οὐκ ἠδύνατο ποιεῖν οὐδέν.)
-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καὶ εἶπον αὐτῷ·)  
당신이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ἐν ἁμαρτίαις σὺ ἐγεννήθης ὅλος)  
우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καὶ σὺ διδάσκεις ἡμᾶς.)  
그리고 그를 내어 쫓았습니다 (καὶ ἐξέβαλον αὐτὸν ἔξω.)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6 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의 공격은 매우 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죄인임을 밝혀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사실 25 절에서 이 청년은 놀라운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는데 지금은 본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쯤되면 유대인들도 포기할 법도 한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청년에게 질문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이들의 질문을 잘 살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여 안식일을 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바리새인들 앞에서 했습니다. 9장 15 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었을 때 그 청년은 어떨결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라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또 다시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다분히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가서 반드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27 절을 읽으십시오. 그 청년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미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개의 질문을 연속적으로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당신들이 다시 들으려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당신들도 역시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동일한 질문을 받았고 이미 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듣지 않았다는 말은 그들이 이 청년이 하는 말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그 청년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청년을 통해 예수님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들의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그 청년이 앞에서 설명한 말 이외에 다른 사실이 있는지를 캐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은 놀랍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청년의 질문을 보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순진한 면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책잡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들을 향해 이 청년은 “당신들이 왜 다시 들으려 합니까? 당신들도 역시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라고 말합니다. 저자인 요한은 순진해보이는 이 질문을 통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청년의 질문은 바리새인들을 놀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질문을 못 알아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 청년이 제대로 설명을 했고, 유대인들이 그 설명을 제대로 알아 들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을 믿는다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할 수 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의 종교적 세계관으로 볼 때 이 청년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의 힘을 빌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결코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눈을 뜬 것은 누가 보아도 그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이 물러난 결과로 일어난 일이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정 사실화 하는 순간 두 번째 질문 즉, “당신들도 역시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유대인들이 그의 말로 인해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담대하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28~29 절을 읽으십시오. 그 청년으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은 유대인들은 매우 격분하여 그 청년에게 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매우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그들은 청년에게 ‘욕을 하면서’ (ἐλοιδόρησαν, 에로이도레산) 말했습니다. 여기서 ‘욕을 하면서’로 번역된 ‘에로이도레산’은 동사 λοιδόρέω(로이도레오)의 서술형, aorit,



3인칭 복수형으로 정확한 의미는 ‘모욕적인 방법으로 박해를 가하면서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격분한 이유는 그 청년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라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왜 유대인들을 이토록 격분시켰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지니는 의미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였으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또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긴 했으나 반대로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상하게 생각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요 6:66 참조). 이제는 갈릴리 출신 제자들 몇 명만이 그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의 어느 종파에도 속하지 않았고, 주류 종파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로 생각하여 죽일 방도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생 일대의 혁명적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다음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 종파에서 나온 아주 잘못된 이단 중의 하나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재판정에 세우고 고소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행 24:5).

여기서 유대인들은 공공연하게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초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단 집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는 유대인들보다는 기독교인들이 집중적으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커뮤니티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귀화하거나 유대인의 회중으로 피하여 배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였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때, 예수님 당시나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결코 환영받을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의 암적 존재로 낙인찍히는 것이었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 중 한국이나 미국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더구나 기독교인이 사회 구성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는 것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표는 교회에서나 붙이고 다니고 사회에서는 다른 명찰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요. 당신은 어떠한가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예수님 vs. 모세 (목요일)

### 오늘의 본문 (요 9:24~34)

24. 이에 저희가 소경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26.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 원어해석하기

- (24절) 그러자 그들이 전에 장님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Ἐρώνησαν οὖν τὸν ἄνθρωπον ἐκ δευτέρου ὡς ἦν τυφλὸς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당신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δοῦς δόξαν τῷ θεῷ·)  
우리는 그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ἡμεῖς οἶδαμεν ὅτι οὗτος ὁ ἄνθρωπος ἁμαρτωλὸς ἐστίν.)
- (25절)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 οὖν ἐκεῖνος·)  
나는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εἰ ἁμαρτωλὸς ἐστίν οὐκ οἶδα·)  
나는 내가 장님이었으며 지금은 본다는 한 가지 [사실]를 알고 있습니다  
(ἐν οἶδα ὅτι τυφλὸς ὦν ἄρα βλέπω.)
- (26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αὐτῷ·)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τί ἐποίησέν σοι·)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πῶς ἤνοιξέν σου τοὺς ὀφθαλμούς·)
- (27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ὑμῖν ἤδη)  
그런데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까 (καὶ οὐκ ἠκούσατε·)  
왜 당신이 다시 들으려 합니까? (τί πάλιν θέλετε ἀκούειν·)

- 당신들도 역시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μη και υμεεις θελετε αυτου μαθηται γενεσθαι.)
- (28절) 그들이 그에게 욕을 하고 말했습니다 (και ελοιδορησαν αυτον και ειπον·)  
당신은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συ μαθητης εις εκεινου, ημεις δε του Μουυσηως εσμεν μαθηται·)
- (29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다 (ημεις οιδουμεν οτι Μουσει λελαληκεν ο θεος·)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τουτον δε ουκ οιδουμεν ποθεν εστιν·)
-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απεκριθη ο ανθρωπος και ειπεν αυτοις·)  
지금 이것이 놀랍습니다 (εν τούτω γαρ το θαυμαστόν εστιν·)  
당신들은 그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합니다 (οτι υμεις ουκ οιδετε ποθεν εστιν·)  
그런데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και ηνοιξεν μου τους οφθαλμους·)
- (31절)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들로부터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οιδουμεν οτι αμαρτωλων ο θεος ουκ ακουει·)  
그러나 그가 신실하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αλλ' εαν τις θεοσεβης η και το θελημα αυτου ποιη)  
그[하나님]가 그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τουτου ακουει·)
- (32절) 그 세대로부터 (창세로부터)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εκ του αιωνος ουκ ηκουσθη οτι ηνερωξεν τις οφθαλμους τυφλου γεγεννημενου·)
- (33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ει μη ην ουτος παρα θεου·)  
그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ουκ ηδυνατο ποιειν ουδεν·)
-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απεκριθησαν και ειπαν αυτοι·)  
당신이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εν αμαρτιας συ εγεννηθης ολος)  
우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και συ διδασκεις ημεις·)  
그리고 그를 내어 쫓았습니다 (και εξεβαλον αυτον εξω·)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8-29 절을 읽으십시오. 어제에 이어 유대인들이 청년에게 한 말을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말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에 엄청난 모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순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거지이자 장님이었던 청년에게 “당신은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모세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는 대립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모세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한 사람을 택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한 사람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과 모세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자신의 견해를 간단하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모세는 율법을 대신하는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를 대표하는 말이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모세를 대립적인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율법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둘 모두 문제입니다. 율법과 은혜, 모세와 예수님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쪽이 결여되면 다른 한쪽도 존재할 수 없는 긴밀한 관계이기에 반드시 이 둘은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6:44 참조).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올 때 쓰이는 도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율법은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며, 율법에 의해 자신이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모순은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한 것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삼십 팔 년된 병자를 고친 일로 논쟁을 하던 중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 3:39).

여기서 성경은 바로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에게서 배웠다’ 또는 ‘모세에게서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모세오경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롬 3:21).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존재로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모세는 알지만 예수는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모순되는 것들을 아무런 생각없이 받아들이고 있고, 기독교의 가장 기초이자 신앙의 출발점인 율법과 은혜의 관계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심판의 주체가 되어 남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치리하기까지 합니다. 구약의 말씀도 임의로 해석하여 어떤 것은 폐지되었다고 하고 어떤 것은 신약 시대에도 존속되었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만연하다시피 해서 문제로 취급하지도 않는 이혼 문제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도 자살이니 동성애니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

이 심판의 칼날을 들이댁니다. 율법의 설명 없는 은혜만 선포된지 오래되었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없는 죄의 문제는 이미 고전이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죄인으로 정죄를 하는가 하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죄로부터의 용서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날 때부터 장님이었고 구걸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며 살았던 한 청년 앞에서 스스로가 성경을 너무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함으로써 그들이 실상은 성경에 무지한 자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자부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을 늘 외우고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하찮은 청년 앞에서 말문이 막혀 화를내고 그에게 큰소리로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마지막 증언 그리고 출교 (1)(금요일)

### 오늘의 본문 (요 9:24~34)

24. 이에 저희가 소경 되었던 사람을 두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줄 아노라
25.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26.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 원어해석하기

- (24절) 그러자 그들이 전에 장님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Ἐρώνησαν οὖν τὸν ἄνθρωπον ἐκ δευτέρου ὡς ἦν τυφλὸς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당신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δοῦς δόξαν τῷ θεῷ·)  
우리는 그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ἡμεῖς οἴδαμεν ὅτι οὗτος ὁ ἄνθρωπος ἁμαρτωλὸς ἐστίν.)
- (25절)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 οὖν ἐκεῖνος·)  
나는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εἰ ἁμαρτωλὸς ἐστίν οὐκ οἶδα·)  
나는 내가 장님이었으며 지금은 본다는 한 가지 [사실]를 알고 있습니다  
(ἐν οἶδα ὅτι τυφλὸς ὦν ἄρα βλέπω.)
- (26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αὐτῷ·)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τί ἐποίησέν σοι·)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πῶς ἤνοιξέν σου τοὺς ὀφθαλμούς·)
- (27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ὑμῖν ἤδη)  
그런데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까 (καὶ οὐκ ἠκούσατε·)  
왜 당신이 다시 들으려 합니까? (τί πάλιν θέλετε ἀκούειν·)

- 당신들도 역시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μη και υμεεις θελετε αυτου μαθηται γενεσθαι.)
- (28절) 그들이 그에게 욕을 하고 말했습니다 (και ελοιδορησαν αυτον και ειπον·)  
당신은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συ μαθητης εις εκεινου, ημεις δε του Μουυσηως εσμεν μαθηται·)
- (29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다 (ημεις οιδουμεν οτι Μουσει λελαληκεν ο θεος·)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τουτον δε ουκ οιδουμεν ποθεν εστιν·)
-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απεκριθη ο ανθρωπος και ειπεν αυτοις·)  
지금 이것이 놀랍습니다 (εν τούτω γαρ το θαυμαστόν εστιν·)  
당신들은 그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합니다 (οτι υμεις ουκ οιδετε ποθεν εστιν·)  
그런데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και ηνοιξεν μου τους οφθαλμους·)
- (31절)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들로부터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οιδουμεν οτι αμαρτωλων ο θεος ουκ ακουει·)  
그러나 그가 신실하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αλλ' εαν τις θεοσεβης η και το θελημα αυτου ποιη)  
그[하나님]가 그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τουτου ακουει·)
- (32절) 그 세대로부터 (창세로부터)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εκ του αιωνος ουκ ηκουσθη οτι ηνερωξεν τις οφθαλμους τυφλου γεγεννημενου·)
- (33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ει μη ην ουτος παρα θεου·)  
그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ουκ ηδυνατο ποιειν ουδεν·)
-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απεκριθησαν και ειπαν αυτω·)  
당신이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εν αμαρτιας συ εγενηθης ολος)  
우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και συ διδασκεις ημας·)  
그리고 그를 내어 쫓았습니다 (και εξεβαλον αυτον εξω·)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0~33 절을 읽으십시오. 그 청년이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 적잖이 놀랐던 모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놀랍습니다. 당신들은 그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들로부터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실하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하나님]가 그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 세대로부터 (창세로부터)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그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그가 신실하다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이라는 조건문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말은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는 말입니다. 이 청년이 눈을 뜬 사건과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놓고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지도자들과 이 청년은 극명하게 다른 해석을 내립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 믿고 있는 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종교지도자들도 알아보지 못한 예수님이 이 청년은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알아보았을까요? 단순히 그가 눈을 뜨는 엄청난 체험때문일까요?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세요.

체험도 분명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장님이 눈을 뜨는 체험은 엄청난 것이었을테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눈을 뜨게 됨으로써 그 청년이나 그의 부모가 엄청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장님이었던 것이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무엇보다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은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엄청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맛본 사람만이 그 진리의 원천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이 청년뿐 아니라 지금 이 청년으로부터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sup>2</sup>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sup>3</sup>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sup>4</sup>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sup>5</sup>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sup>7</sup>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막 2:1-7).

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지요.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이 청년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유대인 종교지도자들과 이 청년이 종교적 세계관이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청년은 자신이 눈을 뜨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믿고 있던 선악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 절대선이시고 절대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 진정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눈을 뜨는 체험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험은 진리를 아는데 유용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을 했다고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진리로 알아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앞에서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이후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동일한 체험을 하고도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간 예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19절에서도 그러한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sup>11</sup>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사이로 지나가시다가 <sup>12</sup>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sup>13</sup>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sup>14</sup>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

함을 받은지라 <sup>15</sup>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sup>16</sup>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sup>17</sup>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sup>18</sup>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sup>19</sup>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열 명의 문둥병자가 모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만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율법에 이른대로 제사장에게 보여 자신들이 나은 사실을 확인하려 했을 것입니다. 같은 체험을 해도 선과 악, 옳고 그름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진리에 이르는 진정한 길은 절대선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 가능한 것이지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절대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그동안 지니고 있던 모든 종교적 신념 체계가 송두리째 변화된 경험이 있나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마지막 증언 그리고 출교 (2)(토요일)

### 오늘의 본문 (요 9:24~34)

24. 이에 저희가 소경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26.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 원어해석하기

- (24절) 그러자 그들이 전에 장님이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Ἐρώνησαν οὖν τὸν ἄνθρωπον ἐκ δευτέρου ὡς ἦν τυφλὸς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당신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δοῦς δόξαν τῷ θεῷ·)  
우리는 그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ἡμεῖς οἶδαμεν ὅτι οὗτος ὁ ἄνθρωπος ἁμαρτωλὸς ἐστίν.)
- (25절)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 οὖν ἐκεῖνος·)  
나는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εἰ ἁμαρτωλὸς ἐστίν οὐκ οἶδα·)  
나는 내가 장님이었으며 지금은 본다는 한 가지 [사실]를 알고 있습니다  
(ἐν οἶδα ὅτι τυφλὸς ὦν ἄρα βλέπω.)
- (26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αὐτῷ·)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τί ἐποίησέν σοι·)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πῶς ἤνοιξέν σου τοὺς ὀφθαλμούς·)
- (27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ὑμῖν ἤδη)  
그런데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까 (καὶ οὐκ ἠκούσατε·)  
왜 당신이 다시 들으려 합니까? (τί πάλιν θέλετε ἀκούειν·)

- 당신들도 역시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μη και υμεις θελετε αυτου μαθηται γενεσθαι.)
- (28절) 그들이 그에게 욕을 하고 말했습니다 (και ελοιδορησαν αυτον και ειπον·)  
당신은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συ μαθητης ει εκεινου, ημεις δε του Μουϋσεως εσμεν μαθηται·)
- (29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다 (ημεις οιδουμεν οτι Μουϋσει λελαληκεν ο θεος·)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τουτον δε ουκ οιδουμεν ποθεν εστιν·)
-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απεκριθη ο ανθρωπος και ειπεν αυτοις·)  
지금 이것이 놀랍습니다 (εν τούτω γαρ το θαυμαστόν εστιν·)  
당신들은 그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합니다 (οτι υμεις ουκ οιδετε ποθεν εστιν·)  
그런데 그가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και ηνοιξεν μου τους οφθαλμους·)
- (31절)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들로부터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οιδουμεν οτι αμαρτωλων ο θεος ουκ ακουει·)  
그러나 그가 신실하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αλλ' εαν τις θεοσεβης η και το θελημα αυτου ποιη)  
그[하나님]가 그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τουτου ακουει·)
- (32절) 그 세대로부터 (창세로부터) 나면서부터 장님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εκ του αιωνος ουκ ηκουσθη οτι ηνερωξεν τις οφθαλμους τυφλου γεγεννημενου·)
- (33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ει μη ην ουτος παρα θεου·)  
그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ουκ ηδυνατο ποιειν ουδεν·)
-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απεκριθησαν και ειπαν αυτω·)  
당신이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εν αμαρτιας συ εγεννηθης ολος)  
우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και συ διδασκεις ημεις·)  
그리고 그를 내어 쫓았습니다 (και εξεβαλον αυτον εξω·)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0~33 절을 다시 한 번 읽으십시오. 이 청년의 말을 잘 음미해보면 마치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도 앞에서 자신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요 7:25~36 참조). 또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죽하겠나이다”라고 말하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 장 9 절~11 절을 읽으십시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sup>10</sup>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sup>11</sup>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요 14:9-11).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진리로 알고 그의 길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지난 삶은 살아 있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에서 출생하였으며, 부모들이 자

신을 죄가운데에서 잉태하였다는 사실이 그마음의 주홍 글씨가 되어 늘 거기에 얽매어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죄로 인해 앞도 못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버림받은자와 같이 거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남들이 몇 푼 쥐어주는 것으로 매일을 연명해야 했던 그 청년, 그는 한번도 자신이 눈을 뜰 날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였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이 어떤 존재였다가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그 일은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보게 되었다는 의미 이상의 엄청난 복음을 깨닫게 된 사건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다시 살아남입니다. 다시 살아남은 죽은자가 아니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론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알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sup>2</sup>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sup>3</sup>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sup>4</sup>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sup>5</sup>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롬 6:1-5).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둠의 상태를 버리는 것이지요. 여기서 어둠이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죽은 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주시므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청년의 눈을 뜨게 한 일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up>39</sup>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sup>40</sup>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sup>41</sup>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요 9:39-41).

32~33 절을 읽으십시오. 이 청년은 “창세로부터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던 자가 눈을 떴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 이 청년의 말에서 창세기 1 장 2 절과 3 절 사이에 일어난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어둠이 먼저였습니다. 물론 어둠이란 빛의 부재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그 어둠에 빛이 계시된 것입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년은 나면서부터 어둠의 상태였고 어둠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 오시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 오자 그는 어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빛이 어둠을 몰아내어 온전한 빛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청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각한 것입니다. 그에게 온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었습니다. 33 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그가 아무 것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이 청년이 장님이었던 것은 죄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

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선과 악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 계시를 위한 문제로 차원이 달라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단계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구원을 단순히 죄사함의 문제에 국한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반쪽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 안셀름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고 인간의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 청년은 바로 그 구원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받은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지어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34 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다가 앞을 본 이 청년이 출교를 무릅쓰고 진술하는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들은 아직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이 청년에게 일어난 일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인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 체계를 끝까지 지키려 하였습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들이 진리에 이르는 것을 막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청년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 청년은 진리를 증거했기 때문에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 준 셈입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